



현의승의

일본농업 따라잡기

12 필수과제는 '팔리는 쌀' 재배

작기·品種 분산 '언제나 맛있는 쌀' 생산

일본의 쌀산업은 '생산하면 팔리는 시대'에서 '팔리는 만큼 생산하는 시대'로 크게 바뀌었다.



일본 쌀농가는 소비자의 요구를 중시해 수확시기와 지역별 선호도 등 매우 세밀한 조건을 고려해 계획된 판매 대상에 가장 적합한 품종을 선택 재배한다.

이시카와(石川)현에 있는 유한회사 반바(番場)농장은 6품종의 쌀을 시기별로 분산 재배한다.

사장 반바 씨는 맛있는 쌀 구입을 문의하는 전화가 오면 반드시 그 고객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되묻는다.

품종별 작업시기 나눠 수확 적기 확보

소비자 기호·업소별 '맞춤형' 쌀 공급

은 이렇게 품종을 달리함으로써 작업을 분산시켜 벼베기를 최적기에 할 수 있다.

작·轉作) 작물로 품을 집단적으로 재배한다. 그 재배관리는 개별농가 단위로 하지 않고 아사히(旭)농업생산조합에 위탁한다.

휴경 논 조합에 위탁...공 재배

반바농장도 휴경 논 11ha의 전작분을 아사히 생산조합에 위탁하고, 반바 사장은 일당을 받아가면서 기계작업을 해준다.

반바농장도 휴경 논 11ha의 전작분을 아사히 생산조합에 위탁하고, 반바 사장은 일당을 받아가면서 기계작업을 해준다.

토양 특성 맞는 품종 드물게 심기

그래서 2001년부터 '고시히카리'를 즐기고 그 대신 '돈도코이'라는 품종을 늘려서 현재와 같이 6개 품종을 재배하게 되었다.

이 농장에서 생산한 쌀은 이시카와현으로부터 환경농산물 인정을 받았다.

판매 경로는 '반바의 힘이 나는 쌀'이라는 브랜드로 이뤄지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판매와 인터넷 쇼핑몰 판매 그리고 유기농 식품점 등에 의한 직접판매가 95%를 차지한다.

현재의 농작업 체계를 보면 이렇다. 모내기 는 4월 하순 '하나에치젠'부터 시작해서 5월 초순 '히토메보레', 5월 중순 '유메고코치'와 '고시히카리', 5월 20일경 '하나에치젠'부터 시작해서 10월 초순 '돈도코이'까지 한 달 넘게 진행된다.

한편, 모내기를 할 때 일반 농가에서는 한 평에 보통 70포기를 심지만 이 농장은 50포기를 심는다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판매 방법도 다르게 한다. 오리농법으로 재배했거나 농약을 줄여 재배한 '고시히카리'는 식품의 안전성에 민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높은 생산비를 충분히 반영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전남쌀 대대적 판촉

친환경 청정미 사랑해주세요

지난달 부산항 감만부두를 통해 수입했던 밥상용 수입쌀 칼로스 1차분 1천327t은 유농업체들의 농민단체 눈치보기와 여론 악화 등으로 2.9%인 40t만 낙찰됐다.

합의했다. 또 전남도는 TV·라디오 광고 외에도 6개 여성월간지, 3개 수도권 생활정보지, 여성전문 인터넷 사이트에도 전남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유참된 칼로스 쌀 잔여분은 12일 전자 입찰방식으로 다시 공개된다.

전남쌀은 국내 3개 흡소킹 프로그램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다.

전남도는 수입쌀의 본격적인 시판에 맞서 친환경 고품질의 전남쌀 판촉강화에 나섰다.

전남도는 대량소비처인 수도권에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일산시 풍동 74평 규모의 '전남쌀 gallery'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쌀 본격 시판 맞서 고품질 쌀 홍보 강화

대량 납품·수도권 안정적 판매망 구축 전략



수입쌀 국내 시판에 맞서 전남도가 전남쌀 홍보 및 판매촉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 전남쌀을 알리는 홍보물.

지난 6일 전남도는 쌀 유통업체인 (주)가나안 내추럴과 연간 50~100억원 규모의 영광 천일미강화미 납품 계약을 맺었다.

곳에서는 전남쌀 10개 브랜드쌀이 전시·홍보되고있으며, 지난해 2~10월 296t(5억 9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다양성의 시대 그리고 남아도는 시대이다. 소비자의 소득 수준과 용도에 따른 니즈 변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은 이제 쌀농사의 필수사항이 되었다.

이외에도 전남도는 수도권 및 대형 병원, 식자재 업체, 학교, 대기업 구매를 조건으로 친환경 쌀 3천ha(영광 천일미곡 2천 ha, 나주동강농협 1천 ha)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오투기 오는 동강농협이 '드림생미' 월 150t 납품을 추진중에 있고, 동원 F&B와는 영광 백수농협의 '사계절이 사는 집' 등 5대 브랜드 쌀을 추천해 우선 협상자 선정을 추진중이다.

한편 전남도는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 브랜드쌀 홍보·시식용 샘플 20만개(500g)를 제작해 각종 농수산물 직판행사와 대형 아파트 단지 등에 배포하는 한편 외지 실수요자에게는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 수도권대학 객원연구원·광주일보 일본통신원〉eshyun21@naver.com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Kim's Rheumatism Clinic. It features a photo of an elderly couple walking, a map of the clinic's location,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The text includes '호남 최초 최고의 관절염 전문병원을 지향합니다', '부드러운 움직임, 건강한 노후생활...', and '김평남내과가 함께 하겠습니다.' The clinic name 'Kim's Rheumatism Clinic' and '김평남내과' are prominently displayed, along with the phone number '062-233-7575~6'.